

활기 유지하는 싱가포르 석유시장

극동의 주요 石油 수출 정제센타인 싱가포르는 최근 中東의 수출용 정유공장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정제용 및 병커링용 原油수입량은 지난해 거의 100만B/D에 육박, 주그만 섬나라인 싱가포르를 아시아에서 日本 다음의 原油 수입대국으로 부상시켰다.

싱가포르의 原油수입은 약 9% 증가, 70만B/D가 되었으며, 수입원도 크게 다양화되고 있다. 그중 말레이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수위를 달리고 中共이 그뒤를 마크하고 있으며, 카타르도 스파트 위탁정제 거래에 힘입어 처음으로 공급원에 끼어들었다. 쿠웨이트와 이란으로부터 도입량은 크게 떨어졌는데, 이것은 페르시아灣에서 유조선 전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석유제품 수입도 33%가 증가하여 30만B/D 수준이 되었다. 수입원별

싱가포르의 石油수입현황 (1987)

(단위 : B/D)

	原 油	연 료 유
말 레 이 지 아	107,000	4,560
사우디아라비아	105,000	77,200
中 共	94,700	-
쿠 웨 이 트	80,320	40,800
인 도 네 시 아	77,000	1,150
이 란	71,000	-
U A E	68,000	500
카 타 르	40,000	-
오 만	24,700	750
濠 洲	17,300	5,250
브 루 네 이	17,200	-
이 칩 트	5,000	-
바 레 인	-	33,000
美 國	-	11,000
印 度	-	10,000
韓 國	-	7,950
台 灣	-	7,500
기 타	820	5,470
소 계	708,040	205,130
기 타 제 품		80,575
합 계		994,545

싱가포르의 석유수출 현황(1987)

(단위 : B/D)

	연료유	輕油	燈油	휘발유	나프타	計	증감(%)
日本	44,350	6,390	56,775	10,000	29,725	147,240	+12.2
말레이시아	30,250	22,750	5,495	25,770	100	84,365	-4.5
홍콩	28,290	19,130	22,485	3,195	6,630	79,730	-8.0
泰國	6,115	46,110	6,305	3,520	-	62,050	+62.0
美國	24,560	3,495	9,640	-	-	37,695	-1.6
인도네시아	5,510	13,355	5,985	-	-	24,850	-*
中共	990	21,225	-	-	220	22,435	-18.1
濠洲	5,600	11,465	2,245	1,620	660	21,590	-29.3
韓國	2,700	1,500	2,140	-	7,460	13,800	+72.5
괌	-	3,475	5,875	2,935	-	12,285	+115.5
베트남	2,625	6,225	725	115	-	9,690	-*
필리핀	6,630	-	-	1,205	-	7,835	+11.6
台灣	660	40	365	765	5,560	7,390	-11.0
방글라데시	-	3,105	1,900	-	-	5,005	-
뉴칼레도니아	165	1,830	940	1,320	-	4,255	-
印度	-	495	2,970	-	-	3,464	-33.4
파푸아뉴기니	75	1,910	515	440	-	2,940	-33.8
이란	-	535	2,310	-	-	2,845	-92.9
스리랑카	-	2,075	620	-	-	2,695	-
기타	2,625	9,890	2,285	1,945	4,645	21,390	-
計	161,150	175,000	129,575	52,830	55,000	573,550	-3.8*

註 : 증감은 86년 대비임. 인도네시아 수치는 87년 추정치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86년자료는 입수 불가.

로는 페르시아만으로 부터 연료유가 主宗을 이루고 있고, 주로 벙커링 용이다.

수에즈 이東의 석유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싱가포르의 민첩한 정제업자들은 구시장이 점차적으로 퇴조함에 따라 새로운 시장을 찾아 계속 동분서주하고 있다. 印度와 이란과 같은 전통적인 고객들이 제품구매를 위해 中東산 유국과 지중해 연안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어 싱가포르 정제업자들은 泰國과 韓國에서의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추파를 던지고 있다.

이들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에 대한 제품 수출은 크게 증가했으며, 앞으로 설비 고도화 프로젝트(크레킹)가 준공될 때까지 몇년 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日本시장도 정제부문의 통제해제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濠洲 역시 통제 해제로 제품수입을 강화할 것 같다. 해묵은 고유한 정치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베트남의 싱가포르에의 석유제품 의존도 늘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싱가포르의 제품 수출지역은 태평양의 원격지 도서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

